

‘문학 열풍’으로 도서시장 호황 누려

상반기 출판계에 소설, 시, 에세이 등 ‘문학 붐바람’이 불었다.

인터넷서점 예스24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분석 및 도서판매 동향’에 따르면 헤밍스님의 에세이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 상반기 예스24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은 올해 상반기 최대 판매 도서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2012, 2013년 2년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헤밍스님이 4년 만에 펴낸 신작이다. 올해 2월 출간과 동시에 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시작으로 총 14주간 1위를 기록했다. 출간 4개월만에 이 사이트에서 9만부 가량이 팔렸다.

한국인 최초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종합 베스트셀러차트 3위에 올랐다. 한 작가가 맨부커상을 수상한 지 하루 만에 판매량 1만권을 돌파, 최근 15년간 가장 빠르게 팔린 도서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와 함께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時) : 운동주 유고 시집’은 초기 디지털을 재현, 독자들의 소유 욕구를 자극해 초판본 열풍을 만들어냈다. 신영복 선생의

한강 ‘채식주의자’ 하루 만에 판매량 1만권 돌파 등 상반기 출판계 성수기·비수기 경계 사라지게 해

타계 이후 ‘김옥으로부터의 사색’ 등 고인의 저서도 인기를 누렸다.

이와 같은 흐름 덕분에 국내 문학의 분야별 도서 판매권수 점유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높아졌다. 작년보다 0.8%보다 상승했다.

이밖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라플라스의 마녀’, 프레드릭 배크만의 ‘오베라는 남자’ 등 해외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소설이 문학 열풍에 힘을 실었다.

올해 상반기 소설분야의 열풍은 전통적으로 연초·연말과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는 11~1월과 7월에 소설을 찾는 독자들이 많다는 공식을 깼다.

예스24는 “근래 최대 호황을 누리며 소설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국내소설분야는 3월부터 1월 판매량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해외소설분야도 지난 5월 판매권수가 1위를 앞질렀다. 특히 5월 소설분야 판매권수는 62만권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5월 평균 판매

권수인 50만권보다 월등히 높았다.

포털 사비, 문단 권력 논란 등으로 지난 해까지만 해도 침체된 분위기였던 국내소설은 이기호 작가의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의 인기를 시작으로 ‘채식주의자’의 맨부커상 수상 소식에 정유정 작가의 신작 ‘종의 기원’ 출간이 더해지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올해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김경욱 작가의 ‘천국의 문’과 은대녕 작가가 11년만에 펴낸 장편 ‘피에로들의 집’도 국내소설을 기다려온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채식주의자’는 맨부커 인터내셔널 톱리스트 후보작에 오르며 3월부터 판매 호조를 보였다. 주간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채식주의자’는 국내소설로는 2013년 조정래 작가의 ‘정글만리’ 이후 3년만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5월 출간된 정 작가의 ‘종의 기원’은 강력한 서사로 단숨에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최정화 작가의 ‘지극히 내성적인’과 김이설 작가의 ‘오늘처럼 고요히’, 박솔미 작가의 ‘머리부터 천천히’와

같이 국내 젊은 작가들의 소설들도 주목을 받았다.

국내소설의 인기는 스타 작가들의 출간 소식이 이어지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소설가 김탁환과 기획자 이원태의 세 번째 소편소설 ‘아편전쟁’이 나온 다. 정지돈 작가의 ‘내가 싸우듯이’를 비롯해 김근희, 김승, 김려령, 김충현, 은희경, 장강명 작가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기욤 뫼사로 시작해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라인업이 이어진 해외소설도 상반기 내내 꾸준한 주목을 받았다.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배크만의 신작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았어요’, 스웨덴 작가 카타리나 잉엘민스드베리의 ‘김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가 북유럽 소설의 인기를 재차 입증했다.

또 한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베르베르의 다음 세대 인류 출현을 다룬 ‘제3인류’ 마지막 완결판 ‘제3인류 5’와 ‘제3인류 6’은 출간과 함께 작가가 내한해 인기를 더했다. ‘오베라는 남자’, ‘미 비포 유’, ‘핑거 스미스’는 상반기에 개봉한 영화 원작으로 판매가 동반 상승했다.

이성주 기자



“‘문화가 있는 날’ 잘 모른다” 국민 42%... 서울 참여율 꼴찌

국민 10명 중 4명은 ‘문화가 있는 날’을 잘 모른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여론조사회사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5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2016년 제1차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42.4%가 ‘문화가 있는 날’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안다는 57.6%였다. 이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직전 조사 결과보다 12.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50~60대 인지도가 직전 결과보다 각각 25%포인트, 24.4%포인트 상승한 54.5%와 47.8%로 나타나 전반적인 인지도 상승을 견인했다.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61.4%),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경북(54.5%)으로 7.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인지도가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부산·경남·울산과 광주·전라도로 직전 조사 결과보다 각각 18.9%포인트, 18.4%포인트 증가한 58.5%와 58.4%를 기록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아는 사람 중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직전 조사 결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38.1%로 집계됐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을 10대와 50대, 60대에서 다소 증가했다.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지역은 부산·울산·경남(43.5%), 가장 낮은 곳은 서울(33.1%)이었다.

군·읍·면 지역민의 참여율은 19.2%포인트 증가한 41.7%였다. 전체 참여 만족도는 직전 조사 결과보다 4.5%포인트 상승한 84.9%로 조사됐다.

이성주 기자

“공연법 현장적용 제대로 안 돼”

문체부, 14일 산업기술원에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6월14일 오후 2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한다.

설명회는 지난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진행한 공연장 표본점검 결과, 102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나타났다.

문체부는 공연 현장에서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공연장 관계자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법률상 받아야 하는 안전 진단의 종류와 주기, 재해대처계획의 작성과 제출 방법, 안전교육 시행방법 등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사항을 중심으로 알려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공연장 관계자의 안전 전문성 강화와 공연장 안전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위해 오는 6월10일부터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6월14일 오후 2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www.stage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연법 개정안에 따르면 객석 수 500석 이상이거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예상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면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내야 한다. 안전관리비를 계산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형 공연장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안전교육을 의무화 했다.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2년마다 각각 4시간, 8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공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해 500석 이하 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공연장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고,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이성주 기자

딱딱한 저작권법 알기 쉽게 ‘꼭꼭 저작권’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과 정당한 권리 행사방법을 안내하는 저작권 안내 책자인 ‘꼭꼭 저작권’(권리자편)을 지난달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내용이 단순하고 법적 용어가 순화됐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궁금증을 자아내던 쉽고 다양한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이란? ▲저작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 복제를 유통 방지에 대한 정책이 궁금해요 ▲저작권 유관 기관은?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도움말 등 총 6개 장으로 구성됐다.

법 외에도 저작권 등록 실무와 분쟁 시 조정 신청 방법, 관련 지원 정책 등도 수록됐다.

문체부는 ‘권리자편’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이용자편’을 발간할 예정이다.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누리집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이성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문화공연 티켓유통 산업협회’ 출범

예스24·옥션티켓·클럽서비스·티켓링크·하나투어 등 5개 티켓에매 사이트가 뭉친 ‘문화공연 티켓유통 산업협회’(공티협·CTBA)가 공식 출범했다.

공티협은 지난달 31일 “지난 4월 21일 문화공연산업의 발전을 위한 창립 총회를 열어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공연계의 오랜 숙원인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과 협회 회원사 예매시스템 간 연동에 힘쓰기로 했다. 이미 공연 티켓에매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인터파크는 통합전산망 참여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등과 함께 협의 사항을 최종 조율 중이다.

공티협은 이와 함께 불법 티켓에매와 암표 유통 근절 등 공연유통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초대 협회장은 이선재 예스24 공연사업 본부장이 추대됐다. 그는 “협회를 통해 공연산업 관계자들과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1일)

| | | | |
|---|---|---|--|
| <p>▷쥐띠 48년생: 몸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0년생: 상황이 불리하니 때를 기다려라. 72년생: 협상이나 계약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말을 좋게 해주고 험한 말은 삼가라.</p> | <p>▷소띠 49년생: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61년생: 진실은 통하는 법. 73년생: 금전적으로는 좋은 기운이나 구설이 따르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p> | <p>▷호랑이띠 50년생: 요령을 피우거나 편법은 금물. 62년생: 손아래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74년생: 매사에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86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p> | <p>▷토끼띠 51년생: 욕심은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63년생: 자신의 일에만 집중 하는 것이 좋겠다. 75년생: 혼자서는 미흡하니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지혜를 빌려라. 87년생: 이동이나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것이 좋은 운이다.</p> |
|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진행하라. 64년생: 기존의 해왔던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76년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라. 88년생: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p> | <p>▷뱀띠 53년생: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65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서 준비할 때이다. 77년생: 사고수와 실물수가 따르니 유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89년생: 생각의 전환이 오히려 해가 되니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p> | <p>▷말띠 54년생: 중간에 피곤한 상황들이 발생하니 심신이 고달픈 운이다. 66년생: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것이다. 78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화가 미치니 작은 것이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9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p> | <p>▷양띠 55년생: 타인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67년생: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할 때이다. 79년생: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며 큰 그림을 그려라. 91년생: 자신이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일만 진행하라.</p> |
| <p>▷원숭이띠 56년생: 혼자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다. 68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보다는 끝머리를 잘해야 하는 운이다. 80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92년생: 겸손함을 잃지 마라.</p> | <p>▷닭띠 57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69년생: 과정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81년생: 겉과 속이 다르니 조심하라. 9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이 따르니 말과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다.</p> | <p>▷개띠 46년생: 변수를 가지면 흉한일이 발생하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58년생: 말을 줄여야 할 때이다. 70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82년생: 작은 소문은 이를 수 있는 운이다.</p> | <p>▷돼지띠 47년생: 계약과 같은 문서를 주고받는 일도 좋다. 59년생: 타인이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운이다. 71년생: 소울했던 사람에게 신경 써야 하는 운. 83년생: 금전운이 안 돌아오니 계획적인 지출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p> |